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사장 허창범 목사 외 임직원 일동

2021년 신년사

새해 새롭게 출발합시다!



로마서 12 :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니라.
2.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2020년도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제 2021년도의 새로운 역사의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 주심이 가장 위에 넘치는 역사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출발로서 결말도 좋은 해가 되길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도전합시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고 새 소망을 얻고 새로운 복을 받기 위해 새로운 결심으로 출발합시다.

◇ 새해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각오,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달려가야 합니다.
마음 문이 닫혀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새로워질 수 없으며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옛날 그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해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맞아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의 생애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2021년 새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방법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 무리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새해 우리는 새롭게 변화 받는 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는 회개로서만이 가능합니다.
회개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고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출발로 일어서야 합니다.
한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섬기시는 교회가 복을 받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 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는 이 한해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라나타!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신년메시지



살렘!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찬양 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팬데믹으로 우울한 한해였습니다. 이제 황폐한 광야같은 이 땅에 2021년 새해 주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해 불안, 초조, 우울, 침울, 낙심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과 비전의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제는 하늘을 보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2021년 새로운 희망찬 풍요로운 새해가 되도록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긍정적 자세로 승리하고 복된 새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1월 1일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허창범 목사

2021년 신년사



지난 1년 동안도 같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지저스타임즈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소원하는 바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하루 한 달, 일년이라는 단위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요, 잘못 살아온 하루를, 한 달을 일 년을 돌아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또 새롭게 다짐하며 소망 가운데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 1년은 자의든 타의든 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하고 지루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새해에 바라는 소망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더 간절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우리 지저스타임즈 가족 여러분들과 나를 아는 모든 분들을 향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볼 일을 안 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연단을 연단으로 끝내시지 않고 그 뒤에는 반드시 복 주시는 이”이심을 믿기에 그 다음을 소망하는 믿음이 더욱 간절하며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새해에는 우리 지저스타임즈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과 사업 위에 평강과 번창의 큰 복의 역사가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드러내며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도록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1월 1일 지저스타임즈 사장 소진우 목사

축 푸른슬교회 원로목사추대 . 담임목사 취임

2020 표어 :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라(요 20:21)

2020 VISION 광주에서 전세계로!!



추대 허창범 원로목사

취임 김미경 담임목사

일시 : 2020년 12월 25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1번안길 47, (영무예다음 2차후문 앞 수완중 옆 Tel(062)953-4620)

2021년 신년사



한해를 돌아보며 정리하는 송년의 계절 12월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난의 시간이기도 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을 지켜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서로에 대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하게 저는 언론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한 단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래된 기억이며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영원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언론은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의 꿈은 그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손짓이 소리를칩니다. 자신에 대해 모든 책임자는 자신입니다. 우리 역사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기가 배의 선장이며 전투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스스로의 위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와 언론의 빛이 이 사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시밭길의 길은 오직 사명과 의지로 헤쳐 나가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년에 즈음하여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출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웨신총회 총회장 박정균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제54차 정기총회 가져

신임 회장에 하톤교회 담임 진건호 목사 선출/
수석부회장 선출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정현 목사)는 9일(월) 오전 10시 30분 나눔과섬김의교회(담임 엘리야 김 목사)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열고 진통 끝에 신임 회장에 이사장 겸 부회장 진건호 목사(하톤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부회장 엘리야 김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부회장 주재임 목사가 대표기도를 한 후, 부회장 김바울 목사가 성경봉독(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 후 남가주교회 증경회장 강신권 목사(성경장로교회 담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강 목사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즉, 기독교는 본질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 목회자의 본질, 성도의 본질이 있다. 이

민 생활이 힘든데, 제발 싸우지 말자. 그런즉,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한다. 남가주한인목사회부터 새롭게 거듭나길 바란다. 그런즉, 어제, 오늘, 내일 뭔가 달라져야 한다. 죄인인 인간은 그 어떤 공로로도 죄를 씻을 수 없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굳게 믿고 따름이 우리의 의인 길로 들어서게 한다. 의롭게 되기 위한 믿음을 소유하고 더욱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런즉,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자"고 말했다.

여성분과위원장 안상진 목사가 봉헌송을 부른 뒤, 부회장 박정희 목사가 봉헌 기도 후 강신권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회장 이정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총회에서 부회장 서사라 목사가 개회기도, 총무 라은규 목사가 회원을 점명한 뒤 회장 이정현 목사가 개회를 선언했다.

총무 라은규 목사가 전회의록 낭독을 한 후 제1호 안(2020년 회무, 회계, 감사보고), 제2호 안 54대 회장 및 임원 선출, 제3호 안 기타 의안 채택을 하고, 의안 심의에 들어갔다.

감사 박문석 목사가 감사보고, 총무 라은규 목사가 회무보고, 회계 방영섭 목사가 회계보고를 한 후 54대 회장단 선출에 들어가 공천위 서기가 공천위원회 보고를 마친 뒤, 현 이사장 겸 부회장인 진건호 목사를 제5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회장 진건호 목사는 "남가주한인목사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1년 동안 회장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갈 수 있도록 하며, 남가주한인목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와 소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가주한인목사회 제54차 정기총회에서는 안건 토의를 통해, 신임 회장에게 수석부회장 선출과 관련 위임을 결의하고, 신임 회장이 공천위원을 구성하여 회장 취임식 때 수석부회장과 함께 취임할 수 있도록 위임 결의한 후 총회를 마쳤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통제와 강압으로는 안된다

정부가 8일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모든 교회들이 또다시 비

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 국민 모두는 중국 우한 폐

렴,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올 한해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보냈다. 코로나의 한파가 몰아닥친 삶의 현장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소시민들이 IMF 때보다 더 힘든 고통의 날을 견뎌왔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갈수록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과 탄식이 엄습하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정부는 국민의 생활 전반을 불모로 강압과 통제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 방법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효과적이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어야 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의 증감 추세를 예측하지 못하고 숙박 외식 관광 소비쿠폰을 발행해 국민들을 밖으로 내몰고, 보수 집

회는 차벽을 겹겹이 둘러쌓아 탄압하면서 민노총 등 진보집회는 적당히 허용하는 방어의 이중 잣대, 편 가르기 방역정책의 결과와 책임까지 모두 국민이 지라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는 정부가 전 세계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해 온 K-방역의 결과와 오늘 또다시 온 국민의 삶과 생활 전반을 움켜쥐고,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강압적 통제를 통해서만 유지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를 반문하며, 방역 당국이 국민을 강제하는 방법이 아닌 국민 스스로 자발적 방역의 주체가 되도록 정부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방법으로 호소하고, 설득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한국교회도 그동안 이웃과 지역사회와 고통을 나누며 함께 고난의 시간을 보내왔다.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한국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전원지

인양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의 파도가 몰아쳤지만 묵묵히 견뎠다. 오히려 스스로를 반성하고 채찍질하며,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기만을 두 손 모아 기도해왔다.

예배는 영적 호흡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신앙의 자유는 누구도 구속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다. 따라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포퓰리즘 권리인 신앙의 자유를 구걸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마스크를 쓰고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까지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확진자 3명이 다녀갔으나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은 수원 모 교회의 사례는 마스크를 쓰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이처럼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들까지 비대면 예배, 20명으로 인원 제한을 통제하는 것은 종교탄압이다.

많은 국민들이 오랜 통제에서 오는 피로감과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 예배를 통한 영적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성탄절에 교회

에 가는 신자들의 당연한 권리마저 빼앗는 전체주의적 통제조치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국교회에 요청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자발적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함으로써 작금의 코로나 팬데믹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될 것이다.

2020.12.8.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심의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허장범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양분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ipress@hanmail.net / jtntvcpi@naver.com

▶팩스 : (032)672-3031

▶HP :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 부터~

▶1년 구독료 : 5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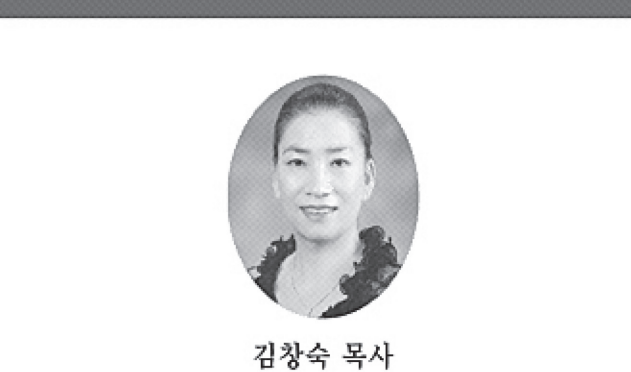
좋은 만남
행복한 성도

담임목사 박수영

예배 시간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일기도	오후 8시
새벽기도	오전 6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6길 11 동대구반도유보라 후문
TEL. (053) 752-8238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신입생 모집 요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 함.

◆ 과정수로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워십,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471번길 3층)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2021년 1월
전도와 선교하는 한 해

담임목사 정대성 목사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초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 / 학생부 : 통합예배
- 수요 예배 : 오후 7:30
- 금요철야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룡



상임목사 박영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향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 서기행 총재와 송용필 회장 취임



사단법인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 지난 1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총재 및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에서는 문세광 목사의 사회로 박장옥 목사의 대표기도, 이흥규 목사의 성경봉독, 목사성가대의 찬양에 이어 박선희 목사(소망교회 원로)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빌 4:10~13)'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역월함과 고난을 당했으나, 그것을 통해 일체의 비결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배웠다"며 "우리는 그간 건강과 질병, 슬픈 일, 실패한 일, 역월한 일을 당하며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들이다. 어떤 일을 당해도 불

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믿고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목사는 "은퇴한 대통령이 복을 받아야 나라가 복을 받고, 원로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복을 받는다"며 "우리는 남은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 통해 역사하신 일을 생각하며, 일체의 비결을 통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한창영 목사가 '국정의 안정과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임광재 목사가 '한국교회 연합과 회복을 위하여', 오세영 목사가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를 위하여'를 주제로 각각 기도했다.

이어 2부 취임식은 현광희 목사의 사

회로 진행되어 서기행 총재와 송용필 대표회장에게 취임장이 수여됐다. 서기행 신임 총재는 한국찬송가공회 대표회장, 예장 합동 총회장(89회기), 증경총회장단 회장을 역임하고 대성교회 원로목사로 있다.

단체기 전달에 이어 격려사를 전한 지덕 목사(한기총 증경회장)는 "이사장 신신목 목사와 서기행 신임 총재, 송용필 신임대표회장은 한국교회에 아주 귀한 분들"이라며 "앞으로 한국교회가 원로목사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졌으면 좋겠다. 한국교회에 크게 기여하는 원로목사님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동권 목사(예장 합동 증경회장)가 격려사를, 최병두 목사(예장 통합 증경회장), 김진호 목사(기감 전 감동회장), 정근모 장로(전 대선 후보, 한국에너지학회 명예회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이는 10여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때로는 슬프기도 했지만 늘 보람이 앞섰다.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가 한국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는 명예이사장 김인식 원로목사, 이사장 신신목 목사, 명예총재 김장환 목사, 총재 서기행 목사, 부총재 김삼환 목사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원로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각 교단별 대표를 두며 17개 지역대표와 공동회장으로 조직되어 있다.

사)한기부. 제52대 대표회장 이.취임식 개최 변권능 대표회장 "교회 회복시키는 일에 적극 앞장 설 것"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이하 한기부)는 지난 7일 평촌 마빌리에서 '제52대 대표회장 이.취임감사예배'를 드리고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은 방역단국의 2.5 격상 시행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이날 이취임 예배는 임구에서부터 철저한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되었다.

준비위원장 정영균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1부 예배는 강창훈 목사의 기도, 이의현목사(총장사단장)의 구호제창, 정인석 목사(해의 회장)의 성경봉독, 강연이 목사의 특송에 이어 송일현 목사(이사장)의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란 제하로 설교했으며, 신장규 목사의 봉헌기도, 총사업본부장 김동호 목사의 광고, 증경대표회장 피종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송일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며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은혜다" 또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푸신 것을 증거했다"며 "서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부 이취임식은 직전 대표회장 전태식 목사의 이임사, 대표회장 변권능 목사가 직전 대표회장에게 공로패 증정, 증경대표회장 한영훈, 김조 목사가 이임하는 전태식 직전대표회장에게 격려사를 했다.

이어 이광택 목사(상임부회장)의 대표회장 약력 소개, 직전대표회장 전태식 목사의 취임패증정, 대표회장 취임사, 총사업본부장 김동호 목사의 회장단 및 실무임원 소개, 축복의 열쇠 증정(상임회장 정영균목사), 강종일, 김수을, 임정목, 유종현 증경 대표회장의 격려사, 심원보, 장희열, 윤보환 증경대표회장, 한경희(여성부흥협 직전대표회장), 이옥화 목사(여성부흥협 대표회장)의 축사, 각 교단 및 단체의 축하패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회장에게 취임한 변권능 목사(맑은 샘교회)는 취임사를 통해 "저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생령 되시는 예수 그리스

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며 "빛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두움을 밝히는 생명의 빛을 세계로 전달하는 한기부가 되어서 주님의 의만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한기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명의 복을 전달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며 "주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한기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직전 대표회장 전태식 목사는 이임사를, 김수을 증경대표회장은 축사했다. 참석자들은 '사)한기부를 위해(이규철 목사)', '세계복음화와 민족복음화를 위해(김용한 목사)', '코로나 극복을 위해(전희조우 목사)', '부흥사들의 영적 각성과 이단척결을 위해(유무한 목사)', '한국교회의 예배회복을 위해(전용호 목사)', '동성에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조영성 목사)', '대한민국 정세의 안정을 위해(정재호 목사)' 각각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기부는 3.1절 구국기도회, 회원 연수, 인도선교 부흥회, 6.25 구국기도회, 회원부 수련회, 여름산상성회, 8.15 구국기도회, 회원부부 체육대회, 지역연합성회 기도원 성회, 제53차 정기총회 등의 사업을 진행기로 했다.

국회는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31일까지 개정해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기공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21일 "국회는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선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며 "만일 통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낙태 허용에 대한 사유와 낙태죄 처벌 근거가 없게 된다. 국회는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공협은 또한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

을 빼앗는 죄"라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지지한다. "면서도 "하지만 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법은 부도덕한 행위를 비범죄화 할 수는 있어도 부도덕한 행위를 비도덕화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해야 할 경우 6주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술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권을 갖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여야는 낙태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2월 31일까지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

다."며 "아울러 자살, 낙태,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성명서는 기공협 법제위원회 위원장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 대표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며 "기공협은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현상을 극복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위해 국회가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도록 청원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국회는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

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선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서정숙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다. 그리고 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여야 의원과 정부의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의무 결정을 했기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만일 통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낙태 허용에 대한 사유와 낙태죄 처벌 근거가 없게 된다. 국회는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임신과 출산 전후 의료인들에 따르면 "임신 후 6주가 되면 태아가 뼈가 형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6주 이후의 낙태는 여성의 불임, 정서적 후유증 등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죄"라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지지한다. 하지만 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법은 부도덕한 행위를 비범죄화 할 수는 있어도 부도덕한 행위를 비도덕화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해야 할 경우 6주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술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권을 갖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여야는 낙태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2월 31일까지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살, 낙태,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21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법제위원장 권순철 변호사

축

성탄의 기쁨이 2021년 새해에도 가득하시길...

대한기독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2021년 교회주제 : 공활을 베푸시는 주님 '도와주소서'



담임 오종설 목사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저녁 8:00
수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매일 5:40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 51, TEL : 041) 631-9146

靑松 건강칼럼(776)... Cholesterol Day

中國이 ‘김치’ 宗主國?
김치(Kimchi)와 파오차이(Pao cai)



靑松 박명윤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靑松 건강칼럼(762)... Cholesterol Day
콜레스테롤(Cholesterol)과 건강

지난 11월 27일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 주도로 김치산업 국제 표준이 제정됐으며, 한국 언론은 ‘김치 중주국의 치욕’이라고 표현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김치 산업 기술 표준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다”고 보도했다. 일부 한국 언론이 환구시보가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소개했다.

또한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Baidu, 百度)가 김치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때 아닌 ‘김치 중주국(宗主國)’ 논란이 일었다. 바이두는 자사의 백과사전(百度百科)서 비스를 통해 “김치는 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 중 하나”라며 “춘추시대 시경(詩經)에 따르면 오이와 배추를 절여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과거 문헌에도 배추를 절여 발효해 먹었다고 서술돼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주도한 김치 산업 국제 표준은 165국이 참여하는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제정됐다고 중

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다. 중국 김치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쓰촨성(四川省) 메이산시(眉山市)가 2017년 4월 김치 산업 국제 표준 제정을 제안했다. 중국국가표준위원회에서 중국표준화 연구원과 중국식품발효공업연구원의 협력 아래 ISO NP 24220 ‘김치(염장 발효 채소) 규범과 시험 방법’ 국제 표준 제안이 만들어졌다.

중국과 ISO 회원국인 터키·세르비아·인도·이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김치 국제 표준 항목이 정식 안건으로 2019년 3월에 채택되었으며, 6월에는 해당 안건이 ISO 식품제품기술위원회 과일·채소·파생제품 분과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통과했다. 이후 1년여 동안 ▲제안 단계 ▲위원회 초안 단계 ▲초안의 의견을 구하는 단계 ▲비준 단계를 거치고 2개월에 걸친 회원국 투표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끝에 11월 24일 ‘ISO 24220 김치(Pao cai) 규범과 시험 방법 국제 표준’이 만장일치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ISO 국제 표준 제정이 ‘중국 김치의 국제 표준화’를 의미한다는 중국 언론의 해석은 과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김치 중주국인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제정된 김치 표준의 공신력은 신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중국의 파오차이(泡菜, Pao cai)는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채소(salted fermented vegetables)를 말한다.

중국의 파오차이(Pao cai)는 한국의 김치(Kimchi)와 전혀 관련이 없다. 파오차이가 기재된 IDO/FDIS 24220에 “이 문서는 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This document does not apply to

Kimchi)”라고 명시되어 있다. CODEX의 ‘김치’ 정의는 배추에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무 등으로 만들어진 혼합 양념으로 마무리 발효시킨 제품이다. ISO의 ‘파오차이’ 정의는 배추류, 겨자줄기, 콩, 고추, 무, 당근 등을 소금물에 담가 고온으로 발효시킨 제품이다.

한국 김치와 중국 파오차이는 재료, 제조법, 발효방식 등이 전혀 다르다. 김치는 배추에 각종 채소를 곁들여 고추와 액정을 넣어 제조한 뒤 저온(低溫)으로 천천히 발효시킨다. 파오차이는 배추, 무, 당근, 오이, 고추, 생강, 마늘 등을 숙성시킨 소금물에 담가서 고온(高溫)으로 발효시키며, 소금물에는 산초와 술(白酒)이 반드시 들어간다. 파오차이는 제조한 뒤 하루나 이틀만 숙성시켜 바로 먹으므로 김치처럼 대량의 유산균(乳酸菌)을 생성하질 못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코덱스)는 국제 식품교역의 촉진 및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1961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설립한 식품에 대한 표준, 실행규범 및 지침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이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1947년에 설립된 비정부조직으로 국가별 표준화기구(1국가 1기구)가 회원으로 가입 및 활동하고 있다.

김치는 한국인의 자부심과 같은 대표 전통음식으로 세계적으로 김치의 우수성이 알려져 있다. CODEX는 김치를 국제식품으로 2001년 공인했다. 미국의 건강전문잡지 <Health>는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또한 2008년 3월 한국식품

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내 기업들과 함께 개발한 김치 등 ‘한국형 우주식품’ 10종이 러시아 생물학연구소로부터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먹을 수 있는 ‘우주식품’으로 인증을 받았다.

유네스코(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김치와 김장’을 세계문화유산(World Cultural Heritage)으로 2013년 12월 6일 등재하였다.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하면서, 마을 주민이 모여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 형편이 어려운 집에도 나눠 주는 전통이 이어져 왔다는 의미에서 ‘김치와 김장 문화’의 영문 명칭을 ‘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김장, 김치를 만들고 나누는 일)’로 했다.

유네스코(UNESCO)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김장(Kimjang)은 이웃 간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연대감과 정체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며 “자연 재료를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세계 다양한 공동체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김치(Kimchi)가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한국 음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김치협회는 지난 2007년부터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그리고 2020년 2월 11일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제20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매년 11월 22일이 ‘김치의 날’로 정해졌다. 김치의 날이 11월 22일로 결정된 것은 다양한 김치 재료 하나(1), 하나(1)가 모여 22가지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11월 22일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기라는 점도 고려됐다.

‘김치의 날’은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김치 중주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김치 소비촉진 등의 행사가 추진된다.

2020년 처음 시행된 ‘제1회 김치의 날’ 기념식은 11월 20일(금요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치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후 처음 열린 이날 기념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대한민국김치협회 주관으로 ‘한국인의 힘, 세계인의 맛!’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선 김치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이 열렸으며, 이어 제9회 김치품평회(品評會)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축사에서 “모든 재료를 포용하고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루는 융합의 미덕을 가진 김치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건강한 발효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김치 중주국의 자긍심으로 천년을 이어온 위대한 맛의 유산을 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케이푸드(K-Food)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한 김치와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계 지원을 강화하고 국산 김치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김치협회(Kimchi Association of Korea)는 2012년 1월 22일부터 발효되는 ‘김치산업진흥법’에 근거한 김치사업자 대표단체이다. 협회는 전통식품인 김치를 과학화·현대화·고급화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계화함으로써 김치중주국 위상을 제고하며, 전국 김치업체의 자발적 모임으로 김치산업 진흥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화합과 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사단법인이다.

최근 K-Food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커지는 추세이며, 선봉에서 이끄는 것이 바로 김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식품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김치 수출 증가세가 돋보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38.5%나 증가한 1억850만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수출액은 2012년 한해 1억661만달러다.

김치 수출시장이 다각화한 점도 고무적이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김치가 미국, 신평방지역 국가 등으로 시장 저변이 확대되면서 올해는 일본 수출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 업계는 국가별로 차별화한 상품화와 마케팅으로 해외 현지인 시장의 문을 꾸준히 두드렸다. 예를 들면, 미국 채식주의자 시장을 겨냥해 ‘저지방’ ‘피시프리(fish-free) 김치’를 수출하는 식이다.

주스웨덴한국대사관은 11월 한 달간 스웨덴(Sweden) 왕실과 정부, 의회와 주요 언론에 김장김치를 나누는 ‘김치 외교(Kimchi Diplomacy)’를 펼쳤다. 이정규 대사는 “김장 김치 상자마다 편지를 동봉해 마음을 전했다”면서 “해당 서한(書翰)에는 김치의 면역력 증진 및 바이러스 억제 효과, 항산화 및 항암 효과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정보를 자세히 담았다”고 강조했다.

‘김치 디플로마시’ 행사는 코로나19(COVID-19) 대유행(pandemic) 속에 김치의 효능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대표 음식이자 면역력(免疫力) 증강에 효과적인 김치를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 대사관은 올해 네 번째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 김치의 맛과 효능을 소개하고, ‘김장문화’를 체험하는 공공외교를 진행했다.

을 추구하는 사단법인이다.

대한민국김치협회(Kimchi Association of Korea)는 2012년 1월 22일부터 발효되는 ‘김치산업진흥법’에 근거한 김치사업자 대표단체이다. 협회는 전통식품인 김치를 과학화·현대화·고급화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계화함으로써 김치중주국 위상을 제고하며, 전국 김치업체의 자발적 모임으로 김치산업 진흥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화합과 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사단법인이다.

최근 K-Food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커지는 추세이며, 선봉에서 이끄는 것이 바로 김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식품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김치 수출 증가세가 돋보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38.5%나 증가한 1억850만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수출액은 2012년 한해 1억661만달러다.

김치 수출시장이 다각화한 점도 고무적이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김치가 미국, 신평방지역 국가 등으로 시장 저변이 확대되면서 올해는 일본 수출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 업계는 국가별로 차별화한 상품화와 마케팅으로 해외 현지인 시장의 문을 꾸준히 두드렸다. 예를 들면, 미국 채식주의자 시장을 겨냥해 ‘저지방’ ‘피시프리(fish-free) 김치’를 수출하는 식이다.

주스웨덴한국대사관은 11월 한 달간 스웨덴(Sweden) 왕실과 정부, 의회와 주요 언론에 김장김치를 나누는 ‘김치 외교(Kimchi Diplomacy)’를 펼쳤다. 이정규 대사는 “김장 김치 상자마다 편지를 동봉해 마음을 전했다”면서 “해당 서한(書翰)에는 김치의 면역력 증진 및 바이러스 억제 효과, 항산화 및 항암 효과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정보를 자세히 담았다”고 강조했다.

‘김치 디플로마시’ 행사는 코로나19(COVID-19) 대유행(pandemic) 속에 김치의 효능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대표 음식이자 면역력(免疫力) 증강에 효과적인 김치를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 대사관은 올해 네 번째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 김치의 맛과 효능을 소개하고, ‘김장문화’를 체험하는 공공외교를 진행했다.

<다음호에서 계속>

성경대로 사는 사람 1

ABC Juice

필자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아내가 만들어 주는 ‘ABC 주스’를 한 잔 마신다. ‘ABC 주스’란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갈아 만드는 주스를 말한다. 주스를 만드는 방법은 이들 3가지 재료를 깍두기처럼 자른 뒤 사과 1컵, 비트 3분의 1컵, 당근 1컵에 물 2분의 1컵을 섞어 믹서에 갈면 된다.

최근에는 ‘ABC 주스’ 시판 제품도 나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우리 집에서 아내가 마트에서 품질이 좋은 사과, 비트, 당근을 구입하여 집에서 만든다. 그리고 각자 취향에 따라 비트나 사과 대신 양배추(Cabbage)를 첨가하면 ‘ACC 주스’가 되고, 바나나(Banana)를 첨가하면 ‘BBC 주스’가 된다.

‘ABC 주스’는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 1954년생)의 추천이자 다이어트 코치인 컬럼비아대학 메멧 오즈(Mehmet Oz) 박사가 제안한 뒤 할리우드 스타들의 체중 감량 효과가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매체에 소개되면서 해독(解毒)주스, 청혈(淸血)주스 등에 이어 건강(健康)주스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ABC 주스’는 내장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과일과 채소를 그대로 갈아 만든 주스이므로 식이섬유(食餌纖維)가 풍부해 독소 배출에도 효과가 있으며, 또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성화학물질인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이 풍부해 항암·항산화 작용과 면역기능 증진에 도움이 된다.

글/ 靑松 朴明潤 (서울대 保健學博士會 會長), Facebook, 20 December 2020.

축 성탄의 기쁨이 2021년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하시며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한국의전협동조합에서

• 고품격 서비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장례서비스카드
무료 발급

단순장례 : 1,200,000원
기초장례 : 2,100,000원
고급장례 : 2,900,000원

필요한 용품만 을 선택하고 결제하는 합리적 장례
전문 장례지도사가 내 가족 내 형제 와 같 히 함께 합니다.

장례 의전의 전문화 장례 의전의 명품화 한국의전 협동조합은 다릅니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이웃
VIP Premium CARD
회원용 장례서비스 카드
본 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5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십니다.
※ 복리후생시스템 10~50%까지 할인서비스

VIP 선택형 장례서비스 상품
단순장례 : 1,200,000원 / 기본장례 : 2,100,000원 / 고급장례 : 2,900,000원
“필요 시 선택항목”
1. 수의장비 300만원 2. 화장비 300만원 3. 관 300만원 4. 화장비 300만원 5. 화장비 300만원 6. 화장비 300만원 7. 화장비 300만원 8. 화장비 300만원 9. 화장비 300만원 10. 화장비 300만원 11. 화장비 300만원 12. 화장비 300만원 13. 화장비 300만원 14. 화장비 300만원 15. 화장비 300만원 16. 화장비 300만원 17. 화장비 300만원 18. 화장비 300만원 19. 화장비 300만원 20. 화장비 300만원 21. 화장비 300만원 22. 화장비 300만원 23. 화장비 300만원 24. 화장비 300만원 25. 화장비 300만원 26. 화장비 300만원 27. 화장비 300만원 28. 화장비 300만원 29. 화장비 300만원 30. 화장비 300만원 31. 화장비 300만원 32. 화장비 300만원 33. 화장비 300만원 34. 화장비 300만원 35. 화장비 300만원 36. 화장비 300만원 37. 화장비 300만원 38. 화장비 300만원 39. 화장비 300만원 40. 화장비 300만원 41. 화장비 300만원 42. 화장비 300만원 43. 화장비 300만원 44. 화장비 300만원 45. 화장비 300만원 46. 화장비 300만원 47. 화장비 300만원 48. 화장비 300만원 49. 화장비 300만원 50. 화장비 300만원 51. 화장비 300만원 52. 화장비 300만원 53. 화장비 300만원 54. 화장비 300만원 55. 화장비 300만원 56. 화장비 300만원 57. 화장비 300만원 58. 화장비 300만원 59. 화장비 300만원 60. 화장비 300만원 61. 화장비 300만원 62. 화장비 300만원 63. 화장비 300만원 64. 화장비 300만원 65. 화장비 300만원 66. 화장비 300만원 67. 화장비 300만원 68. 화장비 300만원 69. 화장비 300만원 70. 화장비 300만원 71. 화장비 300만원 72. 화장비 300만원 73. 화장비 300만원 74. 화장비 300만원 75. 화장비 300만원 76. 화장비 300만원 77. 화장비 300만원 78. 화장비 300만원 79. 화장비 300만원 80. 화장비 300만원 81. 화장비 300만원 82. 화장비 300만원 83. 화장비 300만원 84. 화장비 300만원 85. 화장비 300만원 86. 화장비 300만원 87. 화장비 300만원 88. 화장비 300만원 89. 화장비 300만원 90. 화장비 300만원 91. 화장비 300만원 92. 화장비 300만원 93. 화장비 300만원 94. 화장비 300만원 95. 화장비 300만원 96. 화장비 300만원 97. 화장비 300만원 98. 화장비 300만원 99. 화장비 300만원 100. 화장비 300만원 101. 화장비 300만원 102. 화장비 300만원 103. 화장비 300만원 104. 화장비 300만원 105. 화장비 300만원 106. 화장비 300만원 107. 화장비 300만원 108. 화장비 300만원 109. 화장비 300만원 110. 화장비 300만원 111. 화장비 300만원 112. 화장비 300만원 113. 화장비 300만원 114. 화장비 300만원 115. 화장비 300만원 116. 화장비 300만원 117. 화장비 300만원 118. 화장비 300만원 119. 화장비 300만원 120. 화장비 300만원 121. 화장비 300만원 122. 화장비 300만원 123. 화장비 300만원 124. 화장비 300만원 125. 화장비 300만원 126. 화장비 300만원 127. 화장비 300만원 128. 화장비 300만원 129. 화장비 300만원 130. 화장비 300만원 131. 화장비 300만원 132. 화장비 300만원 133. 화장비 300만원 134. 화장비 300만원 135. 화장비 300만원 136. 화장비 300만원 137. 화장비 300만원 138. 화장비 300만원 139. 화장비 300만원 140. 화장비 300만원 141. 화장비 300만원 142. 화장비 300만원 143. 화장비 300만원 144. 화장비 300만원 145. 화장비 300만원 146. 화장비 300만원 147. 화장비 300만원 148. 화장비 300만원 149. 화장비 300만원 150. 화장비 300만원 151. 화장비 300만원 152. 화장비 300만원 153. 화장비 300만원 154. 화장비 300만원 155. 화장비 300만원 156. 화장비 300만원 157. 화장비 300만원 158. 화장비 300만원 159. 화장비 300만원 160. 화장비 300만원 161. 화장비 300만원 162. 화장비 300만원 163. 화장비 300만원 164. 화장비 300만원 165. 화장비 300만원 166. 화장비 300만원 167. 화장비 300만원 168. 화장비 300만원 169. 화장비 300만원 170. 화장비 300만원 171. 화장비 300만원 172. 화장비 300만원 173. 화장비 300만원 174. 화장비 300만원 175. 화장비 300만원 176. 화장비 300만원 177. 화장비 300만원 178. 화장비 300만원 179. 화장비 300만원 180. 화장비 300만원 181. 화장비 300만원 182. 화장비 300만원 183. 화장비 300만원 184. 화장비 300만원 185. 화장비 300만원 186. 화장비 300만원 187. 화장비 300만원 188. 화장비 300만원 189. 화장비 300만원 190. 화장비 300만원 191. 화장비 300만원 192. 화장비 300만원 193. 화장비 300만원 194. 화장비 300만원 195. 화장비 300만원 196. 화장비 300만원 197. 화장비 300만원 198. 화장비 300만원 199. 화장비 300만원 200. 화장비 300만원 201. 화장비 300만원 202. 화장비 300만원 203. 화장비 300만원 204. 화장비 300만원 205. 화장비 300만원 206. 화장비 300만원 207. 화장비 300만원 208. 화장비 300만원 209. 화장비 300만원 210. 화장비 300만원 211. 화장비 300만원 212. 화장비 300만원 213. 화장비 300만원 214. 화장비 300만원 215. 화장비 300만원 216. 화장비 300만원 217. 화장비 300만원 218. 화장비 300만원 219. 화장비 300만원 220. 화장비 300만원 221. 화장비 300만원 222. 화장비 300만원 223. 화장비 300만원 224. 화장비 300만원 225. 화장비 300만원 226. 화장비 300만원 227. 화장비 300만원 228. 화장비 300만원 229. 화장비 300만원 230. 화장비 300만원 231. 화장비 300만원 232. 화장비 300만원 233. 화장비 300만원 234. 화장비 300만원 235. 화장비 300만원 236. 화장비 300만원 237. 화장비 300만원 238. 화장비 300만원 239. 화장비 300만원 240. 화장비 300만원 241. 화장비 300만원 242. 화장비 300만원 243. 화장비 300만원 244. 화장비 300만원 245. 화장비 300만원 246. 화장비 300만원 247. 화장비 300만원 248. 화장비 300만원 249. 화장비 300만원 250. 화장비 300만원 251. 화장비 300만원 252. 화장비 300만원 253. 화장비 300만원 254. 화장비 300만원 255. 화장비 300만원 256. 화장비 300만원 257. 화장비 300만원 258. 화장비 300만원 259. 화장비 300만원 260. 화장비 300만원 261. 화장비 300만원 262. 화장비 300만원 263. 화장비 300만원 264. 화장비 300만원 265. 화장비 300만원 266. 화장비 300만원 267. 화장비 300만원 268. 화장비 300만원 269. 화장비 300만원 270. 화장비 300만원 271. 화장비 300만원 272. 화장비 300만원 273. 화장비 300만원 274. 화장비 300만원 275. 화장비 300만원 276. 화장비 300만원 277. 화장비 300만원 278. 화장비 300만원 279. 화장비 300만원 280. 화장비 300만원 281. 화장비 300만원 282. 화장비 300만원 283. 화장비 300만원 284. 화장비 300만원 285. 화장비 300만원 286. 화장비 300만원 287. 화장비 300만원 288. 화장비 300만원 289. 화장비 300만원 290. 화장비 300만원 291. 화장비 300만원 292. 화장비 300만원 293. 화장비 300만원 294. 화장비 300만원 295. 화장비 300만원 296. 화장비 300만원 297. 화장비 300만원 298. 화장비 300만원 299. 화장비 300만원 300. 화장비 300만원 301. 화장비 300만원 302. 화장비 300만원 303. 화장비 300만원 304. 화장비 300만원 305. 화장비 300만원 306. 화장비 300만원 307. 화장비 300만원 308. 화장비 300만원 309. 화장비 300만원 310. 화장비 300만원 311. 화장비 300만원 312. 화장비 300만원 313. 화장비 300만원 314. 화장비 300만원 315. 화장비 300만원 316. 화장비 300만원 317. 화장비 300만원 318. 화장비 300만원 319. 화장비 300만원 320. 화장비 300만원 321. 화장비 300만원 322. 화장비 300만원 323. 화장비 300만원 324. 화장비 300만원 325. 화장비 300만원 326. 화장비 300만원 327. 화장비 300만원 328. 화장비 300만원 329. 화장비 300만원 330. 화장비 300만원 331. 화장비 300만원 332. 화장비 300만원 333. 화장비 300만원 334. 화장비 300만원 335. 화장비 300만원 336. 화장비 300만원 337. 화장비 300만원 338. 화장비 300만원 339. 화장비 300만원 340. 화장비 300만원 341. 화장비 300만원 342. 화장비 300만원 343. 화장비 300만원 344. 화장비 300만원 345. 화장비 300만원 346. 화장비 300만원 347. 화장비 300만원 348. 화장비 300만원 349. 화장비 300만원 350. 화장비 300만원 351. 화장비 300만원 352. 화장비 300만원 353. 화장비 300만원 354. 화장비 300만원 355. 화장비 300만원 356. 화장비 300만원 357. 화장비 300만원 358. 화장비 300만원 359. 화장비 300만원 360. 화장비 300만원 361. 화장비 300만원 362. 화장비 300만원 363. 화장비 300만원 364. 화장비 300만원 365. 화장비 300만원 366. 화장비 300만원 367. 화장비 300만원 368. 화장비 300만원 369. 화장비 300만원 370. 화장비 300만원 371. 화장비 300만원 372. 화장비 300만원 373. 화장비 300만원 374. 화장비 300만원 375. 화장비 300만원 376. 화장비 300만원 377. 화장비 300만원 378. 화장비 300만원 379. 화장비 300만원 380. 화장비 300만원 381. 화장비 300만원 382. 화장비 300만원 383. 화장비 300만원 384. 화장비 300만원 385. 화장비 300만원 386. 화장비 300만원 387. 화장비 300만원 388. 화장비 300만원 389. 화장비 300만원 390. 화장비 300만원 391. 화장비 300만원 392. 화장비 300만원 393. 화장비 300만원 394. 화장비 300만원 395. 화장비 300만원 396. 화장비 300만원 397. 화장비 300만원 398. 화장비 300만원 399. 화장비 300만원 400. 화장비 300만원 401. 화장비 300만원 402. 화장비 300만원 403. 화장비 300만원 404. 화장비 300만원 405. 화장비 300만원 406. 화장비 300만원 407. 화장비 300만원 408. 화장비 300만원 409. 화장비 300만원 410. 화장비 300만원 411. 화장비 300만원 412. 화장비 300만원 413. 화장비 300만원 414. 화장비 300만원 415. 화장비 300만원 416. 화장비 300만원 417. 화장비 300만원 418. 화장비 300만원 419. 화장비 300만원 420. 화장비 300만원 421. 화장비 300만원 422. 화장비 300만원 423. 화장비 300만원 424. 화장비 300만원 425. 화장비 300만원 426. 화장비 300만원 427. 화장비 300만원 428. 화장비 300만원 429. 화장비 300만원 430. 화장비 300만원 431. 화장비 300만원 432. 화장비 300만원 433. 화장비 300만원 434. 화장비 300만원 435. 화장비 300만원 436. 화장비 300만원 437. 화장비 300만원 438. 화장비 300만원 439. 화장비 300만원 440. 화장비 300만원 441. 화장비 300만원 442. 화장비 300만원 443. 화장비 300만원 444. 화장비 300만원 445. 화장비 300만원 446. 화장비 300만원 447. 화장비 300만원 448. 화장비 300만원 449. 화장비 300만원 450. 화장비 300만원 451. 화장비 300만원 452. 화장비 300만원 453. 화장비 300만원 454. 화장비 300만원 455. 화장비 300만원 456. 화장비 300만원 457. 화장비 300만원 458. 화장비 300만원 459. 화장비 300만원 460. 화장비 300만원 461. 화장비 300만원 462. 화장비 300만원 463. 화장비 300만원 464. 화장비 300만원 465. 화장비 300만원 466. 화장비 300만원 467. 화장비 300만원 468. 화장비 300만원 469. 화장비 300만원 470. 화장비 300만원 471. 화장비 300만원 472. 화장비 300만원 473. 화장비 300만원 474. 화장비 300만원 475. 화장비 300만원 476. 화장비 300만원 477. 화장비 300만원 478. 화장비 300만원 479. 화장비 300만원 480. 화장비 300만원 481. 화장비 300만원 482. 화장비 300만원 483. 화장비 300만원 484. 화장비 300만원 485. 화장비 300만원 486. 화장비 300만원 487. 화장비 300만원 488. 화장비 300만원 489. 화장비 300만원 490. 화장비 300만원 491. 화장비 300만원 492. 화장비 300만원 493. 화장비 300만원 494. 화장비 300만원 495. 화장비 300만원 496. 화장비 300만원 497. 화장비 300만원 498. 화장비 300만원 499. 화장비 300만원 500. 화장비 300만원 501. 화장비 300만원 502. 화장비 300만원 503. 화장비 300만원 504. 화장비 300만원 505. 화장비 300만원 506. 화장비 300만원 507. 화장비 300만원 508. 화장비 300만원 509. 화장비 300만원 510. 화장비 300만원 511. 화장비 300만원 512. 화장비 300만원 513. 화장비 300만원 514. 화장비 300만원 515. 화장비 300만원 516. 화장비 300만원 517. 화장비 300만원 518. 화장비 300만원 519. 화장비 300만원 520. 화장비 300만원 521. 화장비 300만원 522. 화장비 300만원 523. 화장비 300만원 524. 화장비 300만원 525. 화장비 300만원 526. 화장비 300만원 527. 화장비 300만원 528. 화장비 300만원 529. 화장비 300만원 530. 화장비 300만원 531. 화장비 300만원 532. 화장비 300만원 533. 화장비 300만원 534. 화장비 300만원 535. 화장비 300만원 536. 화장비 300만원 537. 화장비 300만원 538. 화장비 300만원 539. 화장비 300만원 540. 화장비 300만원 541. 화장비 300만원 542. 화장비 300만원 543. 화장비 300만원 544. 화장비 300만원 545. 화장비 300만원 546. 화장비 300만원 547. 화장비 300만원 548. 화장비 300만원 549. 화장비 300만원 550. 화장비 300만원 551. 화장비 300만원 552. 화장비 300만원 553. 화장비 300만원 554. 화장비 300만원 555. 화장비 300만원 556. 화장비 300만원 557. 화장비 300만원 558. 화장비 300만원 559. 화장비 300만원 560. 화장비 300만원 561. 화장비 300만원 562. 화장비 300만원 563. 화장비 300만원 564. 화장비 300만원 565. 화장비 300만원 566. 화장비 300만원 567. 화장비 300만원 568. 화장비 300만원 569. 화장비 300만원 570. 화장비 300만원 571. 화장비 300만원 572. 화장비 300만원 573. 화장비 300만원 574. 화장비 300만원 575. 화장비 300만원 576. 화장비 300만원 577. 화장비 300만원 578. 화장비 300만원 579. 화장비 300만원 580. 화장비 300만원 581. 화장비 300만원 582. 화장비 300만원 583. 화장비 300만원 584. 화장비 300만원 585. 화장비 300만원 586. 화장비 300만원 587. 화장비 300만원 588. 화장비 300만원 589. 화장비 300만원 590. 화장비 300만원 591. 화장비 300만원 592. 화장비 300만원 593. 화장비 30

한교연 제10회 총회, 대표회장에 송태섭 목사 선출

상임회장 원종문 김효종 김학필 목사, 사무총장에 최귀수 목사 3년 연임



2021년 신년하례회 노숙인 사랑의 밥퍼로 시작



송태섭 목사

한국교회연합 제10회 총회가 12월 10일(목)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개최돼 새 회기 대표회장으로 송태섭 목사, 3인의 상임회장을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하고 주요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총회는 당초 160여 명의 총회 대의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8일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원교단 총회장 등 극소수만 총회 현장에 참석하고 대부분은 회무 일체를 위임하도록 했다.

또한 개회예배와 총회 회무처리 순서도 대폭 간소화했다. 총회 후에 예정되었던 신임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의 취임 축하 예식은 취소되었다.

이날 개회예배는 상임회장 원종문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김효종 목사가 기도하고, 총무협 회장 김고현 목사가 성경봉독, 제9회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설교했다. 이어 신임 교단장과 총무들에게 축하패를, 서기 김동성 목사, 총무협의회 회장 진동은 목사, 성누가병원 신명섭 원장,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 이기영 사무총장에게 각각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열린 총회 회무처리에 들어간 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석 목사)의 주관으로 대표회장과 상임회장 선거에 들어간 대표회장으로 송태섭 목사, 상임회장으로 원종문 김효종 김학필 목사를 각각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했다.

사무총장에는 최귀수 목사가 3년 임기 연임되었으며, 이병순 목사가 남독한 제

10회 총회선언문을 박수로 받고, 상임회장 김학필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한교연은 각계에서 축하의 뜻으로 보내온 축하환을 모아 서부역 참좋은 친구들 노숙인 무료급식소에 전달하는 한편 2021년 신년하례회를 노숙인 사랑의 밥퍼 봉사로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제10회기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송태섭 목사는 취임사에서 “한국교회에 하나 되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로 정진으로 하나 되는 일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저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일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임하겠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교회연합의 단합과 결속,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악법 철폐,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교연 제10대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합신대 대학원, 한남대 목신원을 졸업하고, 현재 수원 경원교회를 시무 중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려개혁 총회총무와 총회장, 한기총 부서기, 총무협의회 회장을 지냈으며, 한장총 상임회장에 이어 대표회장을 역임하고 지난 9회기 한국교회 연합 상임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수원남부경찰서 경목, 월드비전 이사로서 봉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채택 발표된 총회 선언문은 아래와 같다,

제10회 총회 선언문

한국교회연합 제10회 총회에 모인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빛진 자로서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앞장서고 교회의 세속화를 배격하며 갱신과 개혁 운동에 나섬으로써 위기에 빠진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한국교회의 분열을 회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연합과 일치운동에 앞장 설 것을 선언한다.

2,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에 희망을 주며, 부당한 방역 조치로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3, 우리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학법, 낙태법 등 악법 시도에 맞서 사회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사명감으로 무장해 대응해 나 갈 것을 선언한다.

4, 우리는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되고 압제당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는데 앞장 설 것을 선언한다.

5, 우리는 한교연 소속 교단과 단체 간의 단합과 결속을 통해 건강한 교회 연합운동의 본을 보임으로써 이 땅의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부흥에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을 선언한다.

2020.12.10 한국교회연합 제10회 총회 대의원 일동

2020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출판기념회

기독교가 안내하는 강원도 여행 「강원도 인문학 산책」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수형 목사, 이하 강기총)는 12월 16일 광도영 도의회, 정일섭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 베어호텔에서 기독교가 안내하는 강원도 여행 「강원도 인문학 산책」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되었다.

강기총 사무총장 유화종 목사(원주선교제일교회)의 사회로 시작한 출판기념회는 박하영 권사(순복음춘천교회)의 ‘주께서 왕이시라, 강원도 아리랑’ 가요 축하연주, 원주기연 회장 정운찬목사(원일장로교회)의 기도 후 강기총 회장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목사는 “「강원도 인문학 산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여정의 시간,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시간, 힘과 회복의 시간, 믿음의 신앙인들의 헌신을 경험하고, 남북한의 분단과 북동동일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 책은 순례의 길이와 즐거움을 경험하고, 힘과 목상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총과 인문학연구기관 키아츠가 공



동 발간한 「강원도 인문학 산책」은 강원도를 영서북부, 영서남부, 영동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 유적, 역사문화 유적, 힐링휴양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 책이다.

저자인사 및 책 소개를 담당한 김재현 키아츠 원장은 “한반도의 척추가 태백산맥만이 아니라 육로와 수로를 따라 움직였던 순례자들의 국토 7호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강원도는 기독교의 특징을 드러내 줄 만한 역사적인 유산과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다.

강원도 기독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총 회장 이수형 목사는 김재현 원장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강원도에 출간

한 책을 전달하였다.

정일섭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강기총에서 강원도 지역 대표 기독교문화유산 담은 강원도 인문학 산책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강원도 기독교 유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알려져 도민과 국민들의 마음 속의 소중한 문화관광자원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도영 도의회의장은 “기독교 복음 전파의 험난하고 고된 순간이 담겨있는 유적뿐만 아니라

라 도내 관광지와 자유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청정지역 강원도 관광자원이 담겨있다”며 “지역 명소도 함께 담아 시와 그림을 함께 하면 순례길이 더욱 풍성해 질 것이다”고 전했다.

성악가 최수길 집사(춘천광명교회)의 ‘청산에 살리라’ 축가 후 강기총 초대회장 권오서 감독, 강기총 회장 이수형 목사, 광도영 도의회의장, 정일섭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키아츠 김재현 원장이 출판기념회 축하 케익을 커팅하였다.

강기총 서기 조성복 목사(원주행구감리교회)의 광고, 강기총 초대회장 권오서 감독(춘천중앙교회 원로목사)의 축하의 메시지 후 축도로 출판기념회를 마쳤다.

피종진 목사 초청 12월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T: 02)3411-9191 F: 02)401-7770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1(화) 저녁
2(수) 저녁
4(금) 오후

6(주) 저녁
7(월) 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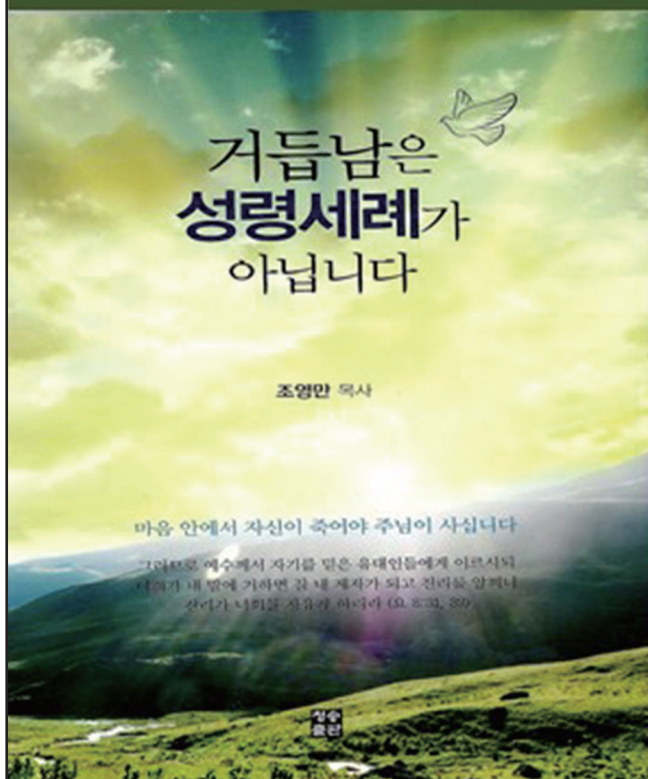
7(월) 저녁
8(화) 오후
15(화) 오전

17(목) 오후
25(금)~26(토)
31(목) 철야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윤재민 목사) ☎ 010-6352-0691
남양주 시내산기도원(원정 조준상 목사) ☎ (031)528-0491
오산 서울제일교회(조환환 목사) ☎ 010-7567-8291
주최: 월드기독교총연합회(대표교단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목사)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 010-8633-0190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대표회장 변관능 목사)
장소: 안양 마벨리에 ☎ (031)381-3000
서울한영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 (02)2608-0111
주최: 한국기독교부흥사단총연합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중앙회장 한영훈 목사)
시흥 한빛교회(정해빛 목사) ☎ 010-8014-3121
오산리최자실기념교회(원정 권경환 목사) ☎ (02)6181-9182
주최: 지구촌기독교부흥선교협의회(상임총재 김영현 목사, 대표회장 신용호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 (02)708-4111 주최: 무지개선교회(대표회장 이목자 목사)
성탄절 특별성회 장소: 김포 감림교회(조경숙 목사) ☎ 010-8222-1992
서울 남서울중앙교회(원로 피종진 목사, 담임 여찬근 목사)
송구영신축복대안수도회 ☎ (02)3411-9191

祝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인천시오교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계시록 21:1)



시온교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현대프라자 301호)
TEL 070-7501-2584, H.P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게시특 9장 강해(56)

하나님의 종들과 알곡 성도들은 누구?

(지난번에 이어서)

전 3년 반 끝 무렵 메뚜기들의 말로?

결말이 패배라면 그 중간과정의 승리한 것 같아도 실상은 패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5개월 동안 승리했으므로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지만 그 뒤에 있을 주 재림 때는 멸망입니다. 반면에 5개월 동안 황충이의 짓밟힘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자신들 속에 깊숙이 박혀있던 불순물, 찌꺼기들이 빠지고 정결케 만들어진 후 순교를 통하여 금 면류관을 받는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황충들은 이미 사람의 몸을 입은 인격체입니다. 네 생물 중에 셋째 생물이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다고 했습니다(계 4:7). 얼굴은 영광스러움을 의미합니다.

탁구선수가 탁구를 잘 치면 그의 얼굴이 영광을 받습니다. 또 주님이 온몸으로 피 흘리고 살이 찢겨져서 대속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의 부활의 영광스런 모습을 해처럼 빛나는 그의 얼굴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그와 같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빛이 있는 성도의 해안입니다. 그 황충이 군대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환란 중에 전 삼 년 반의 마지막 남은 5개월 동안 엄청난 영광을 받고 있지만 그 영광을 영원히 받아서 계속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그 5개월이 지나고 후 삼 년 반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의 영광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지옥 갈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황충들의 모양이 '~같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말씀입니다.

8절)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약 3:14-16 말씀에서 마귀적인 지혜는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름,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수, 화평, 친절, 양선,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고 했습니다. 황충이 군대의 지혜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다는 것은 그들이 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성령에 의한 하나



강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님의 지혜가 아니고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더 고통스럽게 할까, 더 괴롭게 할까? 이런 부분으로 그들의 지혜가 아주 간교하게 발달됨을 말씀합니다.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와 하나 된 황충들이 그들의 악한 지혜로 짓밟는 힘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사역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간교하게 주님께 질문했습니까? 양수결장으로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하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여인의 머리카락 같은 마귀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금 내는 동전을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말씀했습니다. "카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22:15-22)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지혜로서 그들보다 한 수 위입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께 질문한 대로 예수님도 질문형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일곱 열도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앞으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머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열도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일곱 열도 중에 다섯 열도인 지혜의 열에서 예수님과 같은 지혜가 나오고, 여섯 열도로서 말씀이 대언될 때 그 증거 된 말씀 앞에 누구도 막을 수 없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황충의 지혜가 악하고 간교하게 매우 발달하여서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지혜이지만 우리가 그들의 어둠의 세력을 파악하거나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빛 가운데로

가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리쳐지는 것입니다.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짐승의 왕인 사자는 그의 힘이 이빨에 있습니다. 이는 잔인성을 말하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그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령이 몸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감당하려면 오직 주님과 주님이 주신 일곱 열도에 의해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화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9절)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날개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다'고 했습니다. 철갑옷을 입은 병사에게 총을 쏘면 죽지 않았던 것처럼, 누구도 황충이 군대를 대적해서 쓰러뜨리거나 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천하무적입니다.

'그들의 날개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말들이 병거를 끌고 전쟁터로 가는데 졸을 지어 질서 정연하게 가듯이 황충이 군대가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 조직화되고 체계적으로 반쯤없이 일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곧 알곡 성도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동성 있게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화는 순교할 자가 순교할 수 있게 세우는 일이고, 또 예비처로 갈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게 그들의 심령을 대청소 시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사랑이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 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치하고 고통을 주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결국 잘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잠3:11-12). 그러므로 이 첫째 화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다섯 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본문 10절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육체가 괴로움을 당하는 정도보다 영적인 부분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육체보다 심적인 것, 심적인 것보다 영적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인 것입니다.

황충이의 꼬리가 전갈과 같은 꼬리를 가졌고 그 꼬리는 쏘는 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고통을 줄까요? 그 최고의 고통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종들과 알곡 성도들에게 최고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 그들의 꼬리에 있는 쏘는 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짝인 사9:15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머리는 나이 들고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라.”(사9:15)

꼬리는 거짓을 말하는 역사입니다. 예배 때 설교 말씀이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통도 비슷하게 가다가 꼬리부분에 가서 다른 것을 일컬어 이단(異端)이라고 합니다. 황충이 군대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어서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종들과 알곡 성도들에게 거짓을 계속 세뇌시키고 거짓된 것을 강요하고 그들이 믿는 바를 모두 버리게 하는 일들이 곧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최고의 영적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고통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괴로운 것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정신적 손상(damage)을 입게 되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상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공산당이 무서워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의해서 공산당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중국 기독교인들은 요한계시록만 뜯어 낸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종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공산당에서 검열·감시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참 진리 증거가 아니요, 소위 어용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 선

교를 감당했었고 요한계시록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11절)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아폴루온 이더라. 히브리어 '아바돈'과 헬라어 '아폴루온'은 똑같은 뜻인 '파괴자'입니다. 즉 멸망으로 끌여가는 자, 파괴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 황충들을 다스리는 왕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황충들은 그의 하속으로서 적그리스도를 위해 5개월 동안 존재하는 것입니다.

12절)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리라.

5개월 동안 있는 이 황충이의 화 다음에 바로 후 삼 년 반 환란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화의 징벌 속에서 알곡 성도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이 화가 끝나면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남은 1개월입니다. 그다음 1,260일 동안 예언한 두 증인의 예언도 끝나고 그들도 순교합니다. 이것으로 알곡 타락하는 것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있게 될 5개월 동안 황충이의 화를 절대적으로 잘 깨닫고 믿어서 믿음으로 잘 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후 삼 년 반은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심판이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 삼 년 반에 대해서 깨닫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금춧대교회인 주사랑교회로 인도해주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후 삼 년 반의 진노심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전 삼 년 반에 복된 자 중에 더 복된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라'는 후 삼 년 반에 될 사건들을 말씀합니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둘째 화로서 후 삼 년 반에 있게 될 사건 계시임을 계11:11-14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어집니다.

목사코너 291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주사랑교회 강한국 목사
(예장전리 총회장/CJTN tv 부이사장)

(계 4:5) 이는 신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계단기 어려운 내용이요, 오직 신·구약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므로 계시록을 모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말게 됩니다. 혹자가 일곱 영을 일곱이 완전수라 하여 완전한 영이라 치부하거나 또 혹자는 영동하게 사11:2에 갖다 붙여 잘못 해석하고, 주장하곤 합니다. 오늘 이 '일곱 영'은 먼저 행2:18에 또 내가 내 남녀종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행2:17의 오순절 성령과 구별됩니다. 즉 일곱 영을 부여하여 이마에 인침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남녀종들이 주 재림 직전 환란 날에 예언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계시한 것을 그 대상이나 또 연속된 19절-2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영이 나오고 앞서의 성부하나님과 뒤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일곱 영, 성자의 3위체 하나님이 문안 인사 하심을 계시 했습니다. 이는 계시록 주제인 주 재림과 재림 전 환란의 때에는 오늘날 은혜시대의 성부, 성자, 성령의 3위체 하나님에게서 성부, 성자, 일곱 영으로 3위체 하나님을 특별하게 계시하였습니다. 이를 더욱 확증시킴이 오늘 본문 계4:5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심이 일곱 영이 3위체 하나님이시고, 함께 계시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일곱 등불이 불타오르고 있으니 이는 하늘 보좌가 어두워 불 켜진 것이 아닌 사도 요한의 심령이 어두운 부분, 즉 오늘날도 하늘 보좌를 보는 하나님의 종들의 어두운 심령을 일곱 등불로 밝히신다. 곧 일곱 영으로 밝혀 주심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와 달리 계3:1 일곱 영을 가지신 주님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이 친히 일곱 영을 부여 주시는 분이심을 계시한 것이지요. 이와 같음을 확증시킴이 계5:6 어린양의 일곱 눈이 있어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온 땅은 일곱 영을 어린양으로부터 받은 남녀종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오늘날 은혜 시대에도 성령이 부여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인 아닌 성자 예수 그리스도임과 같습니다. 특히 잘 살펴야 될 것은 행 19:1-7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받고 방언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에 일곱 영을 부으심에 있어 주님이 하시는 이 사역에 금춧대교회 사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하나님의 남녀종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금춧대교회 사자로 안수하게 하시면 주님이 일곱 영을 부여하시는 그 역사를 계시했음을 영으로 보며 깨닫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 최초로 순교한 스테판이 성령의 기름을 담은 일곱 등불과 같이 일곱 단계로 계속 성령 충만한 그 심령이 일곱 등불 켜고 있고 그 일곱 영으로 결국 돌 맞아 순교하면서 기쁘게 지나라 했지요. 이는 종말에 대 환란 날에 순교할 성도들이나 사역하는 하나님의 남녀종들에게 스테판 같이 일곱 영을 부여 주실 것임을 우리로 확신케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곱 영 받기를 사모해야지요. 할렐루야!

축 성탄, 2021년 근하신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규필 목사
(동신대학 이사장)

주일에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H.P 010-5355-2584
다움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동익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67번지 현대아이파크 A상가 2층
H.P 010-3342-7302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강대일 목사
(동명보수 총회장)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뱀내장터로4, 3층(신천동)
H.P 010-5660-857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고성규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장승현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심야예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화로 62-5(봉교리 55-6)
☎(041)356-0644

통신 신학생 수시 모집

※명예박사 학위 안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회자 양성기관으로 불타는 사명을 있으나 여러 사유로 신학을 하지 못하신 분이나 중도에서 포기하고 계신 분에게 사명감당의 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사명자는 아무 조건 없이 수시 입학이 가능함.
* 개인별 이수과정이므로 수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02) 849-9395
(총회가입 및 목사안수 상담)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장한국 목사
(신학박사)

주일에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교로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http://jkr.cn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정민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오후 8:00
금요 기도회오후 9:00
2시 기도회매일(월~토)오후 2:00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 여름 타작마당 18 |

V. 여름 타작마당의 의미(임무)를 알아보자

두 증인의 자격은 세 가지 일 도끼, 도리깨, 낫을 잘 다루어야

(다음 시간 이어서)

그래서 라헬이 마 2:17-18에서 /이 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 신 것이 이루어졌음이니, 말씀하시기를 “라마에서 슬퍼하고 울며 크게 애 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라헬이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우는 것이요, 그녀 가 자식들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원 치 아니하였도다.” 함이라. 라헬은 자 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했 다는 것이다. 아! 너는 자식이 없으니 까 좋지않느냐? 아니다. 여러분 예수 님이 오실 때에 많은 어린 아가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것을 보고 울었던 것이다. 언제? 합환체 사건이 난 그날 밤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 무도 영동한 것이다.

그래서 마 2:16-17절에서 /그 후 헤롯이 현자들에게 속은 줄 알자, 심 히 분노하여 군사를 보내어, 그가 현 자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 때를 기 준하여, 베들레헨과 그 온 지경에 사 는 모든 사내아이를 두 살부터 그 아 래로 다 죽이니라. 이는 선지자 예레 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 졌음이니, 라고 했다. 바로 이와 같은 비참한 광경을 라헬이 수천 년 후에 일어난 사건을 미리 본 것이다.

기도가 충만했을 때, 육적인 것을 초월했을 때,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 육적인 남편, 세상 남편을 거절했을 때, 이것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선지 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라마에서 슬퍼 하고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 렸으니, 라헬이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우는 것이요, 그녀가 자식들이 없으므 로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고 했는가? 너무도 많은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 헬에게 선물로 준 것이 바로 요셉이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요셉은 합환체를 먹고 낳 은 자식이 아니다. 성경에 石女들은 한 사람도 합환체를 먹은 자가 없다. 만일에 합환체 때문에 요셉을 낳았다 면,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의 자식 이 될 수 없다. 정육체를 사용해서 자 식을 낳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 나님은 마리아를 들어서 독생자를 낳 게 하실 때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 여 예수가 나실 것을 전하여 줌으로 써 말씀으로 없는 데서 잉태케 하신

으로 예수님을 낳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홀로 사는 여자를 가리켜 남편이 있는 자 보다 자식들 이 더 많다고 했다.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남편이 있는 여인은 자식들 을 마음만 먹으면 10명도 어렵지 않 게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자녀 는 남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녀가 더 많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홀로 사는 여자 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다.

또한 창 43:34절에서 베냐민을 축 복할 때, 다섯 배의 복을 주었다. 놀 라운 것이다. 오늘 우리도 다섯 배 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창 35:16-18에서 광야에서 라헬이 베나 민을 낳은 후 죽어버린다. 그러나 베 나민은 어머니의 젖을 한 번도 빨아 보지 못하고 자란 것이다. 엄청난 고 생을 했다. 우리의 문제는 어머니의 젖 먹는 것이 문제가 되어있다. 육적 인 것을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래서 베냐민이 그것을 먹지 않았니까 다섯 배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리 고 베냐민의 이름이 무엇인가? 베노 니라고 했다. 베노니란 ‘슬픔의 아들’ 이다. 젖을 먹지 못하고 자랐으니 얼 마나 가여운가? 그래서 베노니라는 이름,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베나 민으로 고쳐진 것이다.

슬픔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며, 너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자들 이 나올 것이다. 해서 이름을 ‘베냐민’ 이는 오른 손의 아들이란 뜻이다. 하 나님의 아들이란 뜻이다. 하나님이 붙 들고 있으며,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 러므로 육에서 벗어난 자는 베냐민이 다. 다섯 배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기 베냐민의 계열은 바로 초대 임금, 사울 왕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 도 같은 계열이다. 예스터 역시 같은 계열에서 나왔다. 모르드개 역시 같은 계열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파에서 낳았다고 소 개한다. 베냐민이 위대하다는 말은 바 로 그 말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육을 초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사 상이 없다. 이집트의 사상도 없다. 이 는 광야에서 낳았기 때문이다. 어머니 의 젖도 먹지 못하고 자랐다. 그래서 다섯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모두 여름 타작마당에서 있었다.

정기남 목사

편집인



특히 모택철에 이르는 그 때에 일 어난 사건들이 많다. 환난의 강을 건 널 때도 즉 카나안 복지를 향하여 요 단강을 건널 때도 바로 모택철이었다. 즉 그때가 여름 타작마당이었다는 말 이다. 그러니까 다시 완전히 성경케 되는 강이 요단강이었다. 그 사건을 위시해서 성경에 보면 이 외에도 나 오는 얘기가 많다.

v. 여름 타작마당의 의미(임무)란?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름 타작마당 의 임무는 세상 끝날을 의미한다. 여 름과 여름 타작마당은 차이가 있다. 여름은 세상 끝날이 이르렀다는 말이 지만, 여름 타작마당은 세상 끝이 이 미 이르렀다는 뜻이다. 그때에는 알곡 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역사적인 시 간을 말한다. 바로 이때에 추수꾼이 낫과 도리깨를 준비하고 등장한다.

여기서 낫은 곡식을 바로 구분해 서 베고 단을 묶는다. 그리고 도리 깨로는 튀어나가지 못하게 쳐야한다. 그리고 도끼로는 이미 3년 동안이나 참으면서 열매 맺기를 기다렸으나, 열 매 맺지 못하고로 즉시 찍어버린다. 앞으로 두 증인의 자격을 갖기를 원 한다면 위의 세 가지의 일을 잘 해야 한다. 도끼를 잘 다루어야 한다. 도리 깨를 잘 다루어야 한다. 낫을 바로 휘 돌리야 한다.

다같이 암 8:2 “아모스야, 내가 무 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 리기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왔도다. 내가 다시는 그들을 지나가지 않으리 라. 고 하셨다. 여기서 내 백성 이스라 엘에게 끝이 왔다고 말씀하셨다. 그리 고 내가 다시는 그들을 지나가지 않 으리라, 고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지나가지 않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와 손을 잡 지 않겠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 은 같은 것이다.

(다음에 이어집니다)

III. 성막 영성과 구원 서정의 5단계 -38-**실상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실상(實狀 Actual) 기도를 하라

(지난호에 이어서)

그 편지의 참된 의미는 차치하고 나 서라도 그 편지의 구절만 본다면, 그녀 는 때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대화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홀로 그 어려운 일을 해냈으니,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컸으 라. 가톨릭에서는 그분을 성녀로 추대 했다고 한다. 그와 같은 사랑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하기에 추대받을 만하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을 만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동행하 며 대화하며 살다 갔겠는가? 그렇지 않 다면 그건 왜 그럴까 남을 위하여 희생 하고 봉사하며, 자기 의로 사랑을 베풀 위대한 인물에 대한 예는 하다하다. 인 도의 석가모니, 중국의 공자, 인도의 간 디 등등…….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성인이라고 불 리고 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기에 그 칭호를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렇다고 성인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자 기 마음대로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마7:22-23)고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을 만나 지 못했을까.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요, 교리적인 문제이다.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동행하 는 것인지, 어떻게 그분과 교제를 해야 하는지를 교회나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리나 이론이 아무 리 좋다고 해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 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는 말이 있다. 실제 행함이 없는 믿음, 방법을 모르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다.

3. 대화 훈련**1) 대화 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잡초 같 은 생각들을 제거하라.**

①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이므로 끝 이 낳다는 생각, ② 신령해야만 들린다는 생각(범죄한 아담, 다윗과도 대화하 심) ③ 큰일이 있을 때만 간섭하시고 작 은 일에는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생각 ④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려는 생각 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한 성령님과와의 벽이 막혀 교통이 이루어지 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 은 내 마음이 깨끗할(clear) 때 열리기 때문이다.

2) 믿음의 영안으로 실상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하 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훈련을 통 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은 믿음의 훈련 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히브리 서 12:11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 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히 11:1)라고 했다. 즉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영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며, 이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 거라고 하였다.

즉 영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음의 영안으로 바라보려고 훈련 하라. 그의 얼굴, 머리, 이마, 눈, 코, 입, 수염, 목, 어깨, 손, 그분의 몸 전체까지 도 바라보라. 살아 역사하시는, 회로에 락을 보여주는 그분의 얼굴 모습을, 몸 의 동작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바라 보라. 그분의 형상이 분명히 떠오를 때 까지 훈련하라. ‘내가 내 파수하는 곳 에서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 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렘 2:1) ‘그와는 내가 대 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 니하며 그는 또 어호와와형상을 보겠 거늘’ (민 12:8)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 는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을 의 지하고바라보며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

3) 주님의 음성에 정성을 다하여 귀를 기울여 보라.

그분이 먼저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 쪽에서 먼저 묻고 말을 걸라. 주님은 기 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느낌)속 에 느껴지는 뜻이 그분의 음성인가를 묻고 그분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대화를 하라. 영감으로 오는 느낌에 따라 하나 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영감 역사라 한다. 세상에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주의할 점은 욕심으로 구하 지 말고, 내 의로 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받은 내 응답이 성경에 어긋나면 마귀의 역사로 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 하고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하다보면 실존의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과 나 사이에 부자관계(父子關係)를 유 지하여 그분과 친숙해져라. 둘째, 자 주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러면 음성을 더 자세히 빨리 듣게 된다(출 33:11, 마 7:24, 27). 셋째, 하나님과 항상동행하 며 다윗처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 라. 부자관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父子有親).

4) 성령 받을 자가 취할 자세

사도행전 2장 25-28절에 보면 다윗 은 믿음의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자신의 후원에 계신 것을 믿 었다. 그러므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 하였으며 영생의 희망을 가졌다고 말 하고 있다. 이것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과 동행하며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자 의 기본자세이다. ‘다윗이 저를 가리 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음이여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 하여 그가 내 후원에 계시도다 이러므 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회람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 하 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씩음을 당치 않 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 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 (행2:25-28)

5) 음성 듣는 자의 자세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말씀하 신다. 그러나 우리가 영이 어두워 보 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뿐이다(잠 16:9).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① 잡념을 제거하라(사 66:18). ② 사 탄이 주는 생각들을 대적하라(약 4:1, 었 6:10-20). ③ 내 의를 다 버려라(눅 18:13). ④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라(함 22:1). ⑤ 응답을 기다리라(요 10:27, 시 69:13, 출 33:11). 하나님 뜻이 전달되는 방법은 다 음과 같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축 성탄, 2021년 근하신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처치

주 일 에 배 안 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視務牧師 서명범 同事牧師 지복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왕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향교회

주 일 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철야 오후 8:00

담임 김전호 목사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40번길 17(삼곡동)
H. 010-7788-0091 T.032-612-0190

대한기독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주 일 에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담임 오종철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천시온교회

주 일 에 배 안 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예배 저녁 7시30분

담임 배영자 목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주 일 에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주일 2부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담임 박원근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0-4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베엘중앙교회

주 일 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담임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포어 : 창세로부터 주님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주 일 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6: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00
금요철야 저녁 11:00

담임 조강수 목사

인천광역시 서구 장곡개로 366(가좌동)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편정-1급 ~3급자 환영)

원장 박순종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능구리
☎(033)541-0687 H.P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 일 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담임 최희찬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주 일 에 배 안 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주 일 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국결핵총회 총장
사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담임 홍형표 목사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 010-7585-1955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담임 유순옥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36(2층, 3동 101호 안양동, 우성아파트)
☎(070)8632-6993 H.P 010-3035-5704

호남노회 섬기는교회 설립감사예배 드려

섬기는교회(허성준 목사) 설립감사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호남노회(노회장 고정옥 목사)는 지난 11월

21일(토) 오전 11시 섬기는교회(허성준 목사), 오후 2시 선한목자교회(김순례 목사)에서 설립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21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96번길 66 대덕웨미리상가 3층에서 드려진 섬기는교회 설립 감사예배에 호남노회장 고정옥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부노회장 윤석희 목사의 기도, 섬기는교회 허성준 목사 가족의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어 서기 김미경 목사의 성경봉독

가증을 수여했다. 아울러 웨신총회 총회장 박정균 목사의 권면과 증경노회장 임예성 목사,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목사 등이 축사를, 담임 허성준 목사의 광고, 웨신총회 제2 부총회장 마순덕 목사(직전노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섬기는교회 설립예배 설교 영상, 선한목자교회 설립예배 설교 영상을 통해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시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네이바나 다음, 유튜브에서 지저스타임즈나 cjtn tv, 또는 cpj를 치면 시청할 수 있다.

호남노회 선한목자교회(김순례 목사) 설립감사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호남노회(노회장 고정옥 목사)는 지난 11월 21일(토) 오후 2시 광주광역시 서구 경렬로 69-1 화교빌딩 4층에 자리한 선한목자교회(김순례 목사)에서 고정옥 노회장의 인도로 설립 감사예배가 진행되어 서기 김미경 목사가 기도를, 성경봉독(눅 10:30-37절)에 회의록서기 김태옥 목사, 특송에 김삼순 목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웨신총회 총회장 박정균 목사는 “주막집에서”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호남노회장 고정옥 목사는 서약하고 선한목자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호남노회의 지교회로 설립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고 담임 김순례 목사에게 교회설립가증을 수여했다.

이어 총회 증경총회장 허창범 목사의 권면의 말씀을, 호남노회 직전노회장 마순덕 목사, 지저스타임즈 대표이



사 정기남 목사 등이 축사를, 담임 김순례 목사의 교회설립 소개와 인사가 있는 후 순복음하늘샘교회 담임 박창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섬기는교회 설립예배 설교 영

상, 선한목자교회 설립예배 설교 영상을 통해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시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네이바나 다음, 유튜브에서 지저스타임즈나 cjtn tv, 또는 cpj를 치면 시청할 수 있다.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정기총회

회장 이현옥 목사, 수석부회장 서사라 목사 선출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Southern California Korean Women Ministers Association. 회장 이명희 목사)는 지난 14일(월) 오전 10시 30분 나눔과섬김의 교회(엘리자 김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이현옥 목사, 수석부회장에 서사라 목사를 선출했다.

증경회장 주재임 목사가 1부 예배를 인도한 가운데 부회장 조현숙 목사가 대표기도를 한 후 고문 김인철 목사(RPCA 증경총회장)가 “진도서 4장 9절에서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혼자 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의 땅으로 회향을 가지고 가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다. 모세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 옆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다. 또 그가 아멜렉과 전투할 때 아론과 훌이 있어서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다. 예수님도 혼자서 공생애를 끝낸 것이 아니다. 예수님 옆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후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사람은 믿을게 못된다. 여성목회자들도 혼자 놔두면 가관이다. 왜냐하면, 목회를 제대로 안 해 봤기 때문이다. 목회 경험이 많지 않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드물다. 혼자 가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옆에서 친구가 붙들어 주고, 세워주고, 일으켜 줘야,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건널 수 있다.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도 않는다. 많이 연합하고, 많이 협력하고, 많이 의

논하고, 나아갈 때 여성목사들의 권위가 세워지고, 또 여성목사들이 하는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란 목사가 봉헌기도를 한 후 이현옥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난 후 임시의장 주재임 목사의 사회로 제 2부 총회가 열렸다. 회원점명, 성원보고 후 임시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임시의장 주재임 목사는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며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여성단체로 계속 해서 세워져 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안건 채택으로 △공정위원회 보고 △신임 회장, 수석부회장 및 시임 위원 구성을 심의한 후 신임 회장에 이현옥 목사(OC한인여성목사회 직전회장), 수석부회장에 서사라 목사(주님의 사랑교회 담임)가 선출됐다.

조현숙 목사가 폐회기도를 한 후 신임회장 이현옥 목사가 폐회를 선언함으로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주님이 사랑하는 한국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한국교회야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코로나는 무섭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섭지 않느냐? 온라인 예배가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배를 온라인 예배라니 이게 된 말이나? 예배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할 교회가 현장예배를 포기하다니 무엇이 그리 두렵단 말인가?

사랑하는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님들

현장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현장예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그릇 코로나가 무엇이 두려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목숨 걸고 현장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워 예배를 포

기하십니까? 목숨 걸고 현장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님 위해 예배드리다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생명까지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목숨 걸고 현장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위해서 끝까지 섬기는 교회의 자기 자리를 지키시고 목숨걸고 현장예배를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 올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INCE 1983.6.13

입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

축성탄 새해

예배의 시간을 문의 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에 전화를 돌려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담임목사 모상련

<http://www.mokpojuan.com>

멀티사이트 교회
The Multi Site Church

2021. 謹賀新年

섬기는 분들
부목사:모정선 박민수 모성은 전도사:추정희
시무장로(13인) 협동장로(2인) 은퇴장로(3인) 무임장로(1인)
파송선교사: 임재선(베트남) 김은미(베트남) 안윤기(캄보디아)
김진희(캄보디아) 신길현(미얀마) 백현주(미얀마) 송영관(태국)
최문정(태국) 김미경 (아프리카(00국)) 김경환(남아공)
송선아(남아공) 썬공소아이(베트남) 강새롬

목포주안교회 :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전화/061-272-4908, 276-1006

남악주안교회 :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60번길 17 전화/061-287-0692

용해주안교회 : 목포시 용해지구로 61(연산동) 삼양빌딩 301호 전화/ 061-277-0691

▶▶ 설 교 ▶▶

영으로 귀가 열린 사람이
큰일을 한다!!정기남 목사
(편집인)

성경 겔 37:1~12 서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 살아 큰 군대가 되었는데 그 뼈들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하였다(본문 12). 교회가 죽은 상태라면 아무 일도 못한다. 영으로 귀가 뚫어져야 큰일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귀가 열리는가?

1. 말씀을 들었을 때 귀가 열렸다.

본문 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어다”하고 외쳤다. 그렇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난다. 요 5: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다. 교회가 죽어 있는 상태라면 말씀을 듣지 못한다. 살아 있는 자 영적으로 귀가 열린 자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렇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롬 10:17). 마음도 뜨거워지는 것이요(눅 24:25-32).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행 10:44).

2. 노회나 교회, 총회도 모여야 큰일을 한다.

본문 7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서 서로 연락하더라” 하였다. 소리가 났다는 뜻은 그 뼈들이 제 위치를 찾았을 와중에서 생긴 소리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락하더라고 하였는데 이는 뼈가 서로 제 위치를 찾아 연결되어 골격을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각처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기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다(히 10:25).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다(행 2:46).

3. 모이면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큰일을 한다.

본문 7 “뼈에 힘줄이 생기고”라고 했다. 이는 믿음은 믿음의 원동력을 가리킨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하였다(히 11:6). 또한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말씀하셨다(롬 14:23).

4. 큰일을 위해 교회가 사랑으로 단합해야 한다.

본문 7 “살이 오르고” 그랬다. 교회나 노회나 생명은 사랑에 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있는 상태라면 말씀을 듣지 못한다. 살아 있는 자 영적으로 귀가 열린 자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렇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롬 10:17). 마음도 뜨거워지는 것이요(눅 24:25-32).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행 10:44).

5. 교회가 사랑으로 뭉치고 소망으로 헌신해야 큰일을 한다.

본문 7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했다. 가죽은 몸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같은 맥락에서 신앙이 살아 있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소망으로 내세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는 죽도록 충성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하

고 소망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고전 15:58). 그래야 현재 고난이 있어도 장차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다(롬 8:18).

6. 끊임없이 헌신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하라!

본문 10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하였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 없고 큰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명령하셨다. 전도자들은 전도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알 수 있다(행 4:28-32).

“애청 여러분 영으로 귀가 열렸나요? 영으로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린 사람만이 큰일을 한다”

오늘의 교회가 침체 상태에 빠지고 성장을 멈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곧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퇴보했음을 말하고 생활이 타락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게다가 성령 충만의 관심도 없는 시대요, 코로나19 역병으로 신앙도 교회 생활도 무기력해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뱀들의 독침으로 교회와 신앙인들의 심령을 마비시키고 있다.

결코 이 말은 지나친 예기는 아니라고 본다. 한국교회가 살고 정치가 살고 국가 경제가 회복되려면 위에서 열거한 과정을 거쳐서 신앙이 다시 살아나 큰 역사를 이루는 가정과 총회와 노회,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축하고 마치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라고 말씀하셨다(행 2:17-19).

기도로 마칩니다. 살람

목양칼럼-(25)

광야(육신에서 가나안(성결)으로



조영만 목사

22.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그 이유는 고난의 목적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 하기 보다는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피하려는데 모든 힘을 쏟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는 것인데, 이 목적을 모르므로 귀한 고난의 때를 낭비하고 고난만을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수년, 수십 년 받아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에 병이 생기면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병원이나 약국을 찾지만,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왜 자신에게 이런 병이 왔는가를 생각해 보고 회개할 것을 찾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물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병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아 회개하지 않고 빨리 고통에서만 벗어나고자 주님을 찾아 기도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함을 찾아 회개함으로써 주님을 찾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이 왜 고난을 당할 때는 믿지 않는 자처럼, 또는 믿음이 부족한 자처럼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주님을 찾거나 그 고난을 남의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도리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자 하면 고난을 당한 원인과 목적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닮을 수 있는 데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당하는 모든 고난이 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버리지 못하는 죄악입니까? 끊지 못하는 정욕입니까? 진리대로 못사는 연약함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자주 상하게 하고 불분하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의 유익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는 큰 사랑임을 깨닫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자 주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잠 24:16)고 하심 같이 고난을 통해 완전히 넘어졌을 때, 완전히 망했을 때, 자신이 죽은 자 같음과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을 받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참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인해 온 영을 이루시는 영적 장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더러운 통을 드시라면 드시겠습니까? 물론 드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드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통을 좋아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드는 원인은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고요? 죄를 사랑치 않는다면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 때문입니다.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튼지라 파멸과 고생 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롬 3 : 10-18).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 6:5).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죄(원수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신(몸+죄성)이 약하므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귀의 일을 멸

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주님이 거둔 난 우리를 죄의 형벌과 죄책감에서만 구원하시고, 현존하는 죄의 세력과 원수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는 구원하지 못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실 때,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광야에서 불뿔에 물려 죽어 가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장대 위에 달린 놋뿔, 마라의 쓴 물을 단 물이 되게 했던 한 나무, 바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할 때, 죄의 유혹을 사랑하여 유혹에 넘어가는 일과 죄의 시험을 사랑하여 시험에 드는 일은 입맛을 잃고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쏟아진 보혈을 바라볼 때만이 죄의 유혹과 시험은 힘을 잃고 여러분을 피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외면하기에 죄의 유혹과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죄의 유혹과 시험을 사랑하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쏟아진 주님의 보혈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도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 얻게 될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능히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 이기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골 2:14~15). (다움호에 계속)

A3 칼라 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최초 유성(안료)잉크

▽ 물에 번지거나 용지가 휘지 않습니다.
▽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90%)
▽ 기존 컬러복사기의 1/10 정도

270만원
↓
170만원

(2019년 기독교 관련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컬러주보복사기 출시
(복사, 프린트, 스캔, 팩스, WiFi, 양면 기본)

▽ 3단 6면주보 출력 가능
▽ 4단 8면 주보 출력 가능
▽ 1m 20cm 배너 출력 가능

※컬러를 물 쓰듯 쓴다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이젠 비용 걱정 없이 컬러 인쇄를 마음대로~

• 자동 양면 인쇄 및 양면 스캔 지원
• 12.8cm 대형 컬러 터치 패널
• 대용량 용지 금지함 지원
• PC 없이 스캔 파일을 자유롭게 전송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 설정으로 보호
• 경제적인 슈퍼 대용량 잉크 카트리지를 채택으로 유지비용 절감
• 동급 최강의 빠른 출력속도(24~34매)

47개 vs 52개

테이블(15만원) 옵션

이번에 주문하시는 분에 한하여 잉크 한 세트(B/K, C, M, Y 4개)를 드립니다.

since 1989~
30년을 한결같이~주식회사 영광기업
Glory Enterprise Co., Ltd.

TEL. 1588-0691

서울시 중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

대표이사: 정학영 형로 010-3651-8572, 010-5779-0691 인천공장: (계양구청 앞) 032-351-4114

●영광기업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계신 교회에●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덤핑가격으로 드립니다.



[특허상품] LED십자가!

2021년도 교회 기념품, 선물용, 심방용, 임직용으로추천!
반석위에 십자가 대량/소량 판매중!

경기가 안좋으니 좋은제품을 덤핑가격으로 구입하세요.

●제품이 비싸고 못팔아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원가에 반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에 드립니다.■

※8만개(10만개 중 2만개 판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39,000원 / 기독교 백화점에서는 15,000원 / 인터넷에서는 10,000원 (*택배비별도)
이 제품을 박스단위로 5,000원씩 (택배비포함)드리오니 복음과 선교와 전도의 도구로 잘 사용하시면 감사합니다.

영광기업 대표이사 정학영장로 ☎010-5779-0691 ☎010-3651-8572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www.mokpodream.org

2021년도는
나부터 진도하는 한 해

꿈 의 교 회
DREAMS COME TRUE

2021년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담임목사 이요셉

예배안내
주일1부예배(일)오전 7시30분 주일3부예배(일)오전 11시
찬양예배(일)저녁 7시30분 삼일예배(수)저녁 7시30분
금요철야예배(금)저녁 9시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오후기도회 오후 3시/저녁기도회저녁 9시/철야길회새벽 0시30분

주소: 전남 목포시 산정로322-3(연산동) 전화: 061)277-0496 차량운행: BUS 3번, 60번, 600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 2021년 새해 임원 일동 拜

2021. 표어: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사39:8)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부총회장	서 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회록부서기	회 계	부회계	총 무
										
서동기 목사 (소망교회)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김상대 목사 (반석교회)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천중록 목사 (연약교회)	강치현 목사 (밀알교회)	김주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송안섭 장로 (양문교회)	이정수 장로 (천복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복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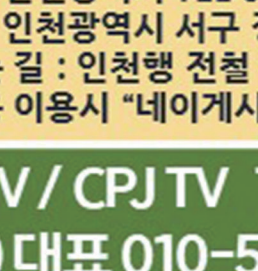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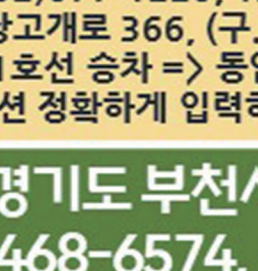
본 교단은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단과 개인, 기관의 가임을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 이사장 : 이규필 목사 H.P(010-7474-3173)
총회 본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94,(가산동) Tel 02)854-1326, Fax 02)496-0181

축 언론방송 신문사/언부협 신년감사예배 공고

지저스타임즈 창간 15주년기념 및 언론부흥사협의회 신년 기도회

이사장 사 장 2021년 근하신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22:21)

이장	대표이사	명예이사장	명예이사장	명예이사장	명예이사장	명예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하창범 목사	소진우 목사	정남수 목사	정희 목사	조상수 목사	이규필 목사	정한국 목사	정대성 목사	백정운 목사	곽봉훈 목사	백수연 목사	홍정호 목사	오중섭 목사	강정수 목사	이국 목사	강오선 목사	고성규 목사	조영안 목사	윤순목 목사		
자문	자문	논설위원	국제본부장	국제본부장	국제본부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최순길 목사	이희 목사	백은바	이정기 박사	최라	서라	국영민 목사	윤석희 목사	최라	국영민 목사	서라	임오한 목사	안현 목사	강주 목사	강정수 목사	백수연 목사	임오한 목사	백영미 목사	강전 목사	정라	정라
운영이사	운영이사	후원이사	논설위원	후원이사	후원이사															
																				
백정섭 목사	윤석희 목사	이정진 목사	임오한 목사	임오한 목사	임오한 목사															

= 신문방송 신년하례회 장소 안내 =
일시: 2021년 1월 22일(금) 오전 11시
장소: 인천광역시 TEL 032)577-1225, H.P 010-5468-6574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66, (구.가좌4동)
오시는 길: 인천행 전철 1호선 승차 => 동암역 하차 마을버스 593번 승차 종점에서 하차 바로 옆 영광교회 있음
자가용 이용시 “네이게이션 정확하게 입력하고 오시면 틀림없습니다.”

지저스타임즈 신문/인터넷 CJTN TV/CPJ TV 경기도 부천시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02호
TEL 032)672-3031(팩스겸용) 대표 010-5468-6574, 010-3478-6574 http://jtntv.kr



주님과 함께 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JTNTV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칼럼리스트

제목: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
성경: 요한복음 15:16~18 찬송가 435장

성경에 인물들을 보면 작가 속에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의 모든 삶을 보면 머리에 삭도 되지 않은 것을 빼고는 믿지 않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가 막힌 곳인지를 조금만 알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헌신을 하더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지명하여 불러내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 나의 모든 소원이
성경: 시편 38:9 찬송가 181장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필요와 요구하는 바를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자신의 요구를 반복하지 않는데 이는 자신의 모든 경우를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울 사람은 없어도 도울 주님이 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제목: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 시편 38:10~11 찬송가 400장

상처의 원어는 문자적인 뜻은 한 번 내려치기, 한 번 바람이 불기입니다. 여기의 한번 내려치기란 하나님이 인간 위에 내리신 재앙이나 심판이란 의미입니다.

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그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까지도 그를 멀리했다는 문맥에 의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 번이자 엄청난 크고 무서운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문제보다 더 크신
성경: 시편 38:12 찬송가 545장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라는 말은 이것을 본 시편 기자가 약해지고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에 의하여 버림을 받아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자가 되어 버린 사실을 이용하여 대적들이 자신을 해 하려고 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기억 할 때는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를 하나님 보다 크게 본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제목: 듣지 아니하고
성경: 시편 38:13 찬송가 505장

듣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대적들의 헛된 자극에 반응을 보이거나 분노하지도 않고 그들이 아무 말도 안한 것처럼 조용히 인내했다는 말입니다. 이를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죄를 인식함으로써 변명도 논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즉 본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계속 침묵을 유지했는데 그 까닭은 자신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는 모르는 상태지만 죄가 있다면 그것을 징벌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목: 반박 할 말이
성경: 시편 38:14 찬송가 323장

반박 할 말이 없나이다 라는 문자적인 뜻은 반응이 없다 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변호를 위한 변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과 고통, 시험은 감당 할 수 있기에, 나를 성장·단련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면 또한 모진 고통과 고난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승리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분이 더 크신 분이시며 이길 힘과 용기 주십니다.

제목: 믿음의 사람은
성경: 시편 38:15 찬송가 292장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의 원문의 문자적인 뜻은 여호와 당신에게

내가 소망을 두어왔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 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당하게 모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자는 그의 대적들로 인한 수모와 억울함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당할 수도 있고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제목: 누구를 기쁘게 하라
성경: 시편 38:16~17 찬송가 333장

본절에서 저자는 자신의 힘이 거의 고갈되어서 계속되는 죄악 속으로 넘어질 위험에 처했는지 아니면 가중되는 짐 때문에 자주 가라앉고 있는 그래서 그의 대적들로 하여금 승리의 쾌재를 부를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 할 일에 목숨 걸고 시간을 쓰기 보다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며 삽시다.

제목: 철저한 회개
성경: 시편 38:18 찬송가 213장

본 시편 저자는 그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기도 했던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임을 강조해서 밝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땅 위에 살면서 갖가지 역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의 중요한 한 가지는 죄가 그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철저한 회개인 것입니다.

제목: 하늘의 사람의 진가
성경: 시편 38:19 찬송가 250장

본절이 의미하는 바는 저자 자신이 연약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의 대적들은 생기가 왕성하고 육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진력 있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자의 연약함을 그들의 유일한 점으로 삼았으며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저자는 그들과 겨룰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불리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종제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는 하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출발점
성경: 시편 38:20 찬송가 496장

본 구절의 의미는 본 시편 기자의 대적들이 그에게 악행 했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자가 대적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는 출발이었습니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연행심사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은 세상은 배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제목: 그의 시련이 주는 바 된 교훈
성경: 시편 38:21~22 찬송가 429장

그의 시련은 하나님 앞으로 그를 인도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고통과 시련이 의도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시련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시련은 괴로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시련의 종국적인 목적도 달성치 못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시련과 괴로움을 고난과 고통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한 복을 앞 당겨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써 승리합니다.

제목: 나의 각오는
성경: 시편 39:1 찬송가 95장

여기의 각오는 혀로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의 불평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중얼거림으로 잘못 비추어질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하나도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안에 있다면 무조건 긍정 할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이 좋은 날 보기위하여 내 입에서 거짓을 멀리하며 복 담길 그릇이 되기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제목: 억누를 수 없는 감정
성경: 시편 39:2~3 찬송가 205장

그 감정의 불꽃이 솟아올라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즉 그는 도저히 그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그 감정을 말로 토해 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감정과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려하지 말고 전능자의 손이 나 자신과, 내 가정, 내 기업에 간섭하여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분의 섭리와 은혜로만 충분합니다.

제목: 신앙의 여정
성경: 시편 39:4~5 찬송가 341장

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손가락을 가지런히 포개 한 손바닥 폭의 직선 길이로 10cm 정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산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몹시 짧은 것을 가리킵니다. 탄생과 죽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며 우리는 그저 신앙의 여러 갈림 길 속에서 만나는 선택 속에서 주님 편을 택하며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제목: 하루를 살아도
성경: 시편 39:6 찬송가 568장

그림자의 문자적인 뜻은 헛된 과시, 환영, 착각 등입니다. 문자 그대로 어떤 실체의 그림자와 같은 이미지 혹은 그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그림자는 우상을 뜻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림자처럼 곧 사라져 버리는 인간의 허무한 실존을 가리킵니다. 있다가 사라져 버릴 안개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긴 줄 알고 있지만 내게는 그러한 일이 안 닥칠 줄 알고 사는 게 어찌 보면 인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도 언젠간 죽어 저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삽시다.

새초부터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돼라

딤후 2:20-22절

새해부터 새말까지 영적인 부자로, 영적인 말쑥의 부자로, 영적인 총성봉 사자로 부하게, 육적으로도 부자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부자가 되자,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집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릇이 있다고 했다.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우리 그릇도 있고, 값 비싼 골동품 그릇도 있다.

이 큰 집은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 고전 3:12~13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고 했다. 여기서 금, 은, 보석

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무, 풀, 짚으라는 나쁜 신앙을 가진 자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의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요, 이는 좋은 신자를 가르치며, 나무와 질그릇은 천히 쓰는 그 공력이 불타는 찬된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금, 은, 보석 같은 사람으로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1.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본문 딤후 2:21절에서 '이런 것'은 나무와 질그릇,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 금과 은, 보석과 같은 좋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

면 그릇은 그릇인데 천히 쓰는 그릇, 가치가 없는 신앙인이 있다. 말하자면 순식간에 타버리고 없어질 지푸라기 같은 신앙인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세해에는 결심을 하고 금과 은 같은 성도로서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2. 귀히 쓰는 그릇은 모든 일에 가치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한 빛, 어두움을 밝히 주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실천이요, 생활화요, 열매를 맺는 좋은 일이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금과 은 보석처럼 가치 있는 성도로 살며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집부 제공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THE CONSERVATIVE CHURCHES ASSOCIATION IN KOREA

협의회 창립 40주년 (1980년 1월 10일 설립)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

외 43개 회원교단 일동

공동회장단

김주상목사, 박영호목사, 이의근목사, 이창희목사
임준제목사, 진공영목사, 조정근목사, 최남규목사

임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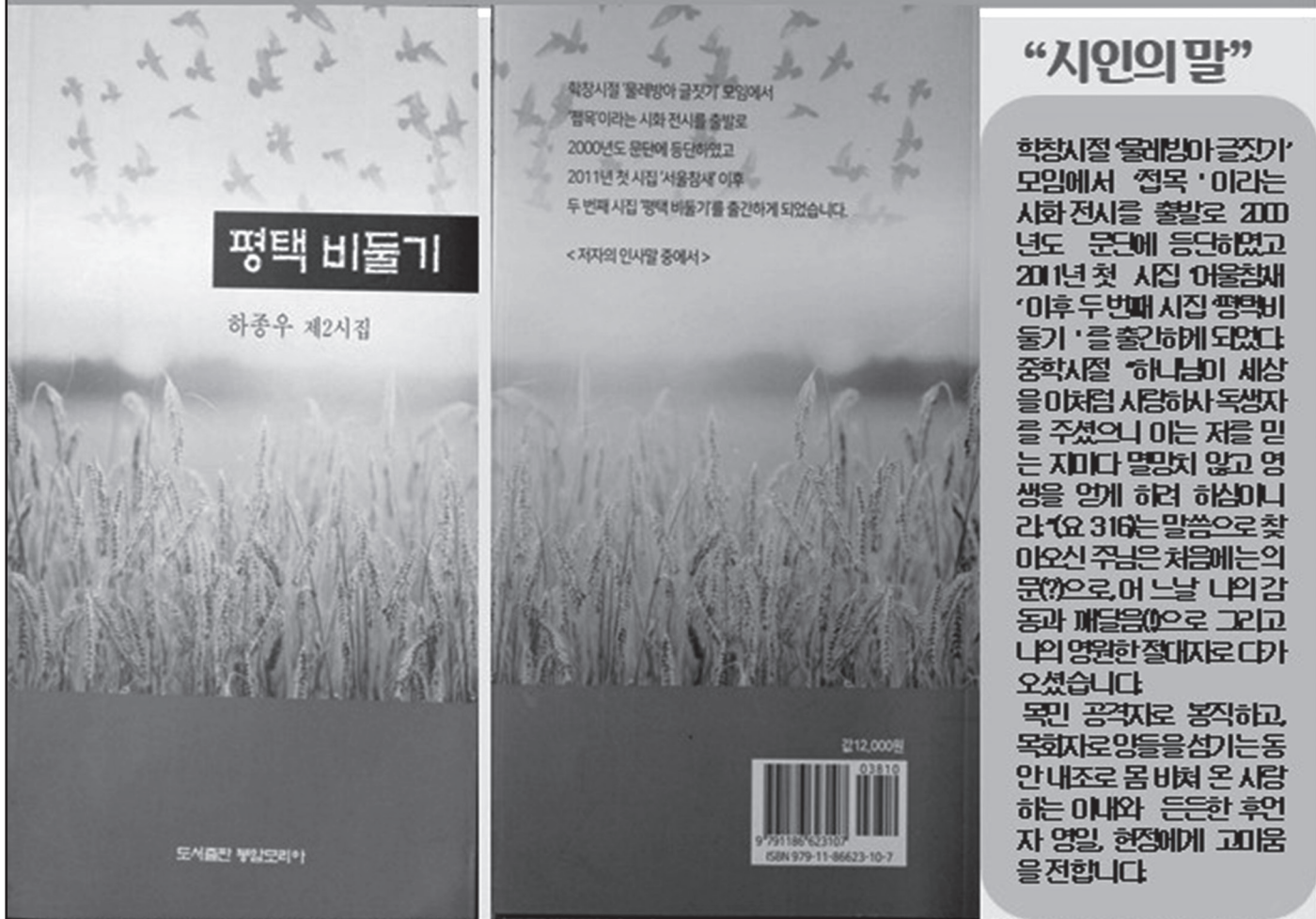
상임회장 신한철목사 사무총장 김준희목사
서기 박승주목사 회계 백병국목사
총무 광영민목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7길 25, 6층(화곡동,호용빌딩)

전화: 02)2608-2190 팩스: 02)2608-2191

하종우 목사 저 제 2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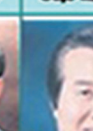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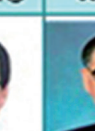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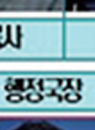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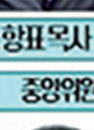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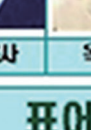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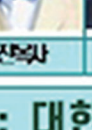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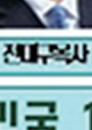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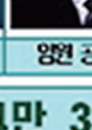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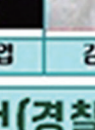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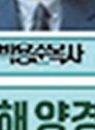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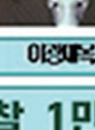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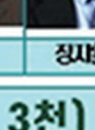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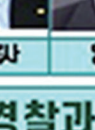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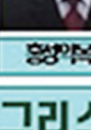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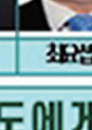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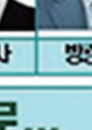
평택 비둘기



저자 하종우목사(하종우목사) 서울성경신학대학교신학석사(M.A) 졸업 2000년자유문학,기독교신학사상시상 한국문학인협회,열린신문학회회원,공무원2년근무지도관퇴직,제10회서초문학상,제19회열린신문학상수상,한국신학교교수,경기신학교교수역임,현비율신교회대표회장 (우)1793경기도평택시평택로 12,10층 403호(합정주공) HP:010-2740-1571 email: shan59@naver.com



축 성탄 경찰청 · 한국경목총회 임원일동

총회장			명예총회장			총 장			28대 총회장		30대 총회장		34대 총회장		36대 총회장		37대 총회장		39대 총회장		4대 총회장		고 문		수석 부회장		연호 대표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이장식목사			김종순목사			홍향표목사			조영복목사		염신형목사		허 식목사		이성재목사		김진수목사		최현기목사		박승식목사		권대현목사		전남수목사		장기남목사		김창중목사		성상모목사		김영광목사		남기우목사		이기정목사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이장식목사			김종순목사			홍향표목사			조영복목사		염신형목사		허 식목사		이성재목사		김진수목사		최현기목사		박승식목사		권대현목사		전남수목사		장기남목사		김창중목사		성상모목사		김영광목사		남기우목사		이기정목사					
회장			회 계			행정국장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